

**최우수상**

## 시니어사원 체험수기

대구테크노폴리스1 가사도우미 엄기순

제목 : “ 이틀뒤에 또 올게요.....”

애호박이 우째 이래 맛있게 볶았노?

“새우젓 마이(많이) 여코(넣고) 조선히박 요래 볶아노마 ( 놓으면) 우리 영감이 억수로(진짜) 잘묵었지”

김이 솔솔 오르는 밥숟가락위에 호박볶음을 한 젓가락 올려드리면서 내 입가에도 웃음이 피어납니다.

위아래 다 합해도 치아가 4,5개 밖에 없으시니 호박볶음이나 계란찜처럼 부드러운 반찬밖에는 헤드릴 수밖에 없지만 어르신께서는 91세라는 연세가 무색 할만큼 식성이 좋으십니다.

별것 아닌 반찬들이지만 식사 때마다 늘 맛있다, 고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반찬을 헤드릴까 기분 좋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이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3년간 저의 하루하루는 떨칠수 없는 우울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을 한 뒤 60살이 넘은 나이의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입사하고 얼마되지 않아 회사에서 당한 산업재해로 인해 제 왼손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겨우 남기고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라는 큰 상처를 얻게 되었지만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엄마라는 이름이 있었고 저만 바라보는 자식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제비새끼 같은 어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한다는 오직 그 생각만으로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도 흘러 제가 손가락을 잃을 당시 중학생이던 딸이 지금은 그때의 내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눈물나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가족모두 둘러앉아 맛있게 먹던 저녁 밥상 넘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내인생에서 큰부분을 차지했던 회사에서마저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나니 행하니 빈 등지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어디한군데 아픈곳 없이 건강하고 마음은 아직 이팔청춘인데 어느곳에서도 나를 찾지 않고 누구도 내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제가 해야 할일도 없고 시간에 맞춰 가야할 곳도 없어지니 마치 공중에 붕떠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우울증이란게 이래서 생기는거구나 라며 힘들어 할즈음 (LH 시니어클럽)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도 할수 있다는게 좋았고 희망이 없다고 낙담했던 내게 다시금 활기차게 움직일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페달을 신나게 밟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도와드려야할 어르신들의 집에 도착을 할수 있습

니다.

제 집근처에 LH 아파트가 있고 그곳에 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어르신은 연세가 91세인 어르신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생전에 계시다면 연세가 비슷하시겠지요.

어르신을 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시게 됩니다.

늙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늘 깔끔하고 정갈하신 어르신은 아침에 제가 방문하면 늘 반가운 얼굴로 웃어 주십니다.

밤새 혼자 주무시느라 얼마나 적적 하셨으면 아침에 만나는 우리를 이렇게 반가이 맞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때면 마음이 참 짠해집니다.

그래서저도 더 반가운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인사를 드립니다.

2인 1조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저희팀은 방문을 하면 제일먼저 어르신들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는지 밤새 춥지는 않으셨는지 약은 잘 챙겨 드셨는지 이런저런 안부를 여쭙어 보면 어르신들은 늘 좋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저희가 그저 좋으신 것이겠지요.

잠시 이야기를 재미나게 나눈후에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청소합니다. 거동이 편치 않으신 어르신인지라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들이 소소하게 많습니다.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환기를 시켜준 후 걸레를 깨끗이 빨아 집안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아 냅니다. 이틀에 한번씩 방문해서 청소를 하긴 하지만 올때마다 먼지는 신경써서 닦아 냅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께는 먼지 한톨도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냉장고에 있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어 드립니다.

치아가 거의 없어 잇몸으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께는 부드럽고 연한 반찬 위주로 해드립니다.

제철에 나오는 채소들을 찌고 조리고 끓여서 맛있는 반찬을 해드립니다. 반찬이 다 되어가면 꼭 어르신께 간을 봐달라고 합니다. 음식간이야 제가봐도 되는것이지만 “어르신이 간을 잘보시지요” 라며 너스레를 떨며 손가락을 입에 대어 드리면 “본다고 내가 무얼 아나” 라고는 하시지만 얼굴을 웃고 계십니다. 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냥 싱겁다고 하지 않으시고 “간장을 두 손갈 더 넣고 마늘도 좀 더 넣고 썬불에 달달 볶아야지”라며 명령을 내려주시면 저는 군소리 없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럴때면 유독 더 힘이 넘치고 의욕이 있어 보이셔서 일부러 더 간을 보아달라고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요리를 참 잘하셨던 모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어르신의 목소리에 신이 납니다. 고추짬은 이렇게 양념해야 맛있고 가지는 껍질이 얼마나 말랑해질 때 까지 썰야 안물러진다 정구지(부추) 김치를 담을때는 어떤 젓갈을 써야 더 맛갈나는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 하실때면 마치 젊은 시절 새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하시는듯 합니다.

그 모습과 그 목소리가 좋아서 괜히 아는것도 모르는척 여쭙보기도 하면서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만든 반찬들로 어르신이 식사를 마치실 동안 옆에서 식사 수발을 들어 드리면 어르신은 미안하신 모양이신지 자꾸만 괜찮다고 불일을 보라고 하시지만 친정어머니 살아계실동안 나는 왜이렇게 손가락위에 반찬한번 올려드리지 못했나 하는

죄스러운 마음에 가끔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렇게라도 대신 갚는 마음으로 식사수발을 들어 드립니다.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행주까지 싹싹 빨아 베란다 건조대에 널어 햇볕을 쬐고 나면 그날의 일이 얼추 끝납니다. 저녁 드실 상도 봐놓고 드시는 약도 챙겨 드린후에 가보겠노라 말씀드리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힘든 몸을 일으켜 굳이 배웅을 해주십니다. 이틀 뒤면 또 오니 그때까지 식사 잘 챙기시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집밖을 나갈 때면 내심 걱정도 됩니다. 높은 연세에 혼자만 계시니 뭘 하셔도 불안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걱정 말라며 이틀 뒤에 꼭 다시 오라며 인사를 하십니다. 석달 째 늘 찾아 뵈었는데도 늘 같은 말씀이십니다. 혼자 계신게 외로우시겠지요 이렇게 잠시 잠시라도 다녀가는 제가 참 반가워서 그러시는 거겠지요 어르신께 저란 존재가 고맙고 반가운 사람이듯이 어르신을 찾아뵈고 돌봐드리는 이일이 제 인생에도 단비같이 찾아 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고 내손길 하나에 이렇게 힘을 얻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보람 있을수가 없습니다. 60이 넘었던 이유로 더 이상 설자리 없이 튕겨져 나와야 했던 서글프기 그지없던 제 생활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91세의어르신과 65세의 제가 LH 시니어 클럽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고 또 그분들께 작은 힘이 라도 될수있다면 남은 저의 인생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정다녀가듯 어르신 집을 나서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이틀뒤에 또올게요~”